

‘上’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한중일 대조 연구*10)

오 성 애

Abstract

Wu Shengai 2016.03.31.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mmatical function of “上(sang)”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ilingual Research* 62. 49-72.
This paper mainly aims at investiga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onsistent form characters “上(sang)” in Korean, in Chinese and in Japanese comparatively. The same form characters ”上(sang)”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meaning and fun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inguistics, to study the same form of characters in different languages is not only helpful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s in the three languages, but also has significance to probing the universal principl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of languages. From the comparison in world-formation and the syntax of “上(sang)” in above three languages ,this paper explored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上(sang)” when it is a simple world , a part of compounds and a part of sentences. By analyzing,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that “上(sang)” , in Korean, can be served as roots, prefixes and also suffixes as well, while it is only served as roots and suffixes in Chinese and Japanese. The characters “上(sang)” in Korean, not only has the function of word-building , but also can be post placed in sentences. What’s more, by comparison of the characters”上sang)”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 makes it much easier to better understand the grammatical features of the characters “上(sang)” in Korean. (Ocean University of China)

*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上'은 한국 한자음 '상', 중국어 '上'(shàng) 및 일본 한음 '上'에 한하며 한국어 고유어 '위', 중국어 '上'shàng', 일본어 화어 '上'는 논외로 한다.

[Key words] 상(sang), 형태소(morpheme),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조어법(word formation), 통사적 파생(syntactic derivation).

1. 서론

한자는 기원적 측면에서 중국에서 생성하고 발달한 문자지만 서로 간의 교섭을 통해 한중일 삼국에서 상호 차용과 피차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 문자가 되었다. 기원적으로 일음절 단어이던 한자가 한중일 각 언어 내부에서 의미의 확대와 더불어 문법적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한자 연구는 더 이상 문자, 어휘 차원에서만은 아닌 문법론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자는 표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휘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기가 쉽지 않고 문법적 기능이 더해지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어에서 ‘的’이 전형적인 한자어 접미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온 이유는 ‘的’이 한자에서 흔치 않게 발견되는 문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중일 언어에서 ‘上’이 어휘소이면서 문법소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한중일 대조 언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는 ‘上’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를 통해 한국어 ‘上’의 문법적 정체성을 밝히고 형태, 통사론적 측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삼국에서 그동안 ‘上’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上’은 문헌 연구에서부터 통시적인 고찰과 공시적인 분석 등 다각도적 연구가 이루어졌다.¹⁾ 고한어에서 ‘上’의 연구로는 魏麗君(1991), 王恩林(1995), 張世祿(1996), 儲澤祥(1996) 등이 있고 현대 한어에서는 楊

1) 邱斌(2008:19)에 따르면 중국에서 ‘上’은 ‘방위사, 방위명사, 방위표, 방위어휘 성분, 정위사, 표지부사, 지위부사, 준방위표’로 불려 연구되었다.

安紅(2003), 童盛强(2006), 馮明紅(2000)이 있다. 고한어 연구에서 ‘上’의 의미 분화와 용법의 쓰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한어에서는 인지의미론적 연구가 많고 그밖에 허사로서의 ‘上’의 문법화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일본에서 ‘上’에 대한 연구도 의미와 용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久島茂(1999)는 ‘中’과 함께 ‘上’의 의미 해석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고 秋元美晴(1993)은 한자어계 접미사 ‘上’에 대해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上’의 선행 어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上’의 형태 의미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어 ‘上’의 문법화를 다룬 연구로는 黃小麗(2014)가 있는데 일본어에서 형태소로서 ‘上’이 단어뿐만 아니라 구에 후행하면서 문법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일 대조 연구에는 張科蕾(2004)에서 조어적 측면에서 중일 동일 형태소 ‘上’과 ‘下’를 대조 분석하였고 陳紅(2002)에서는 의미와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上’이 중일 언어에서의 대응과 비대응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上’에 대한 논의는 한자어 접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다루어지거나 한자어 어휘 대조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上’에 직접 착안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이강로(1978)가 유일하며 대조 연구로는 박민수(2009)가 있다. 이강로(1978)에서는 한국 전용 어휘를 바탕으로 ‘上’자와 ‘下’자의 어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고 박민수(2009)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前, 後, 上, 下’가 시간, 공간, 방위를 나타내는 말에서 비대칭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上’에 대해 삼국 언어를 동시에 대조한 연구는 없으며 한국어 ‘上’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본고는 그동안 한국어 ‘上’의 문법적 기능이 미처 조명받지 못한 점과 한중일 동일 한자의 형태, 통사론적 대조 연구가 미비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上’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자 한다. 한국어 ‘上’의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고 중일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上’의 문법적 정체성을 진일보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가 한국어 한자 형태소 분석과 한중일 삼국 한자 연구 및 한국어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이고 2장에서는 ‘上’의 형태론적 기능을 단일어와 복합어 구성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上’이 통사적 파생의 기능과 문법 범주 표시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대조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4장은 결론이다.

2. 한중일 ‘上’의 형태론적 기능

한국어에서 한자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지금까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별도의 체계를 세워 기술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했고 또 하나는 한자어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단일범주 입장을 취하냐 다범주 입장을 취하냐도 역시 한자어 분석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²⁾ 줄고(2012)에서는 학계에 존재하는 한자어 기술 문제에 관한 논의를 비교 분석하고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당시 제안한 방안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한자어 형태소는 고유어와 별개의 체계에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용법을 보이는 형태소에 대해 다범주적 입장을 취하자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上’이 단일어 또는 복합어 구성에서 어떤 형태론적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2)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로 다룰 것을 제안한 논저로는 노명희(1998), 정원수(1991)가 있고 별도 체계로 다뤄야 한다는 논저로는 김종택(1972), 김규철(1997), 송기중(1993)이 있다. 노명희(2005)는 단일범주 입장을 주장하고 송기중(1993)은 다범주 입장을 내세웠다.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 단일어로서의 ‘上’의 문법적 기능

(1)

- a. ㄱ. 성적이 상은 간다.-명사
 ㄴ. 그 책은 상만 읽었다.-명사
- b. ㄱ. 鳥在樹上叫. (새가 나무 위에서 울고 있다)-명사
 ㄴ. 上市場買菜. (시장에 장보러 가다)-동사
 ㄷ. 發生在上百年之前. (수백년 전에 발생하였다)-형용사
 ㄹ. 上報到地方政府. (지방 정부에 보고하다)-부사
- c. ㄱ. 成績はもう少し上だ. (성적이 조금 더 상이다)-명사
 上はまだ讀んだことがない. (상은 아직 읽은 사이 없다)-명사
 ㄴ. 彼の成績は上の部だ. (그의 성적은 상위이다)-명사
 この料理の出來は上の上だ. (이 요리는 최상으로 만들어졌다)-명사

한국어에서 ‘上’이 단일어로 쓰이는 경우는 (1aㄱ, 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명사에만 한정되어 있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서는 (1bㄱ~ㄹ)와 같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기능하고 있다. 한중일 사전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단일어로서의 ‘상’은 명사로만 표시되어 있고 중국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표시되어 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어는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등급 높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또는 (서적의) ‘상권’을 가리키는 말의 축약형이 전부이다.³⁾

한일 언어에서 '上'은 [등급 높음]을 나타내며 다른 단어와의 결합이 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와 달리 'XのX'의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의 'XのX'의 통사적 구성은 한국어에서 2음절 한자어 또는 합성어로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음절 한자어 또는 합성어와 같은 한국어의 형태적 구성이 일본어에서 'XのX'의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일 언어가 형태론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⁴⁾ 한국어와 일본어의 품사적 성격은 의미 뿐만 아니라 형태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중국어의 품사 결정 요인은 형태가 아니다. 어순이 극히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중국어에서 단어는 문장 내에서 어순에 의해 통사 범주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1bㄱ~ㄷ)와 같이 '上'은

3) 한중일 사전에서 '상'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 ㄱ. 『국어대사전』 제3판(1998), 이희승, 민중서림.
 - 상(명)上①위.위쪽.상부(上部). 「도로 ~에서 주웠다.」 ②상감. 「~께옵서」 ③2책 또는 3책으로 된 책의 첫째 권. 「~과 하로 나뉘어진 책.④가치.등급.순위.정도 등이 윗 길임.뛰어남. 「품질이 ~에 속한다.」 ⑤(접미사처럼 쓰이어) ‘...에 있어서’, ‘...에 관하여’, ‘...에 관계로’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체면 ~/법률 ~의 과실/역사 ~의 위인.」 (이 뜻을 경우에는 짧게 단음으로 발음.)
- ㄴ. 『現代漢語辭海』(2002), 《現代漢語辭海》編委會主編, 光明日報出版社.
 - 上shàng ① (名) 高處; 較高的位置 ② (形) 處于高處的 ③ (名) 指君主、皇帝 ④ (名) 指尊長或地位高的人 ⑤ (形) 時間或順序在前的 ⑥ (名) 等級或質量較高的 ⑦ (動) 從低處到高處 ⑧ (動) 向前進行 ⑨ (動) 呈獻; 奉上 ⑩ (副) 向上 ⑪ (動) 去; 往 ⑫ (動) 達到 (一定的數量或程度) ⑬ (動) 特指登台; 出現在某些場 ⑭ (動) 增補; 添加 ⑮ (動) 記載; 登載 ⑯ (動) 安裝 ⑰ (動) 擰緊 ⑱ (動) 涂; 抹 ⑲ (動) 按規定的時間活動 ⑳ (動) 碰到 ㉑ (動) 開始并繼續下去, 相當于“起來” ㉒ (名) 表示在某一事物範圍以內 ㉓ (名) 表示某一方面 ㉔ (名) 用在表示年齡的詞語后, 相當于“的時候”.
- ㄷ. 『日語漢字辭典』(1996), 曲廣田·王愷 編, 吉林大學出版社
 - 上(じょう) (名)①上等. 『彼の成績は上の部だ。この料理の出來は、上の上だ。』 ② (書籍的)上卷.

4) 한국어에서는 합성어지만 일본어에서는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는 이현주·이선웅(2013:235)을 참조.

아무런 형태 변화가 없이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서의 다양한 품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2.2. 복합어 구성에서의 ‘上’의 문법적 기능

(2)

- a. ㄱ. 상반신, 상반기, 상중하, 상하, 상덕
 ㄴ. 상기둥, 상팔자
 ㄷ. 상남자, 상거지, 상도둑, 상노인
- b. ㄱ. 上半身, 上半年, 上中下, 上下, 上德
 ㄴ. 頂梁柱(중요한 기둥), 好命(좋은 팔자)
 ㄷ. 大男人, 男子漢(남자다운 남자), 赤貧(알거지), 很坏的賊
 (매우 나쁜 도둑), 年紀很大的老人(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
- c. ㄱ. 上半身, 上半期, 上中下, 上下, 上輩からもらう德
 ㄴ. 大黒柱(중요한 기둥), 非常によい運命(좋은 팔자)
 ㄴ'. 上得意(좋은 손님), 上秀眉(원만하다, 성공적이다), 上手物
 (매우 정교한 공예품), 上天氣(좋은 날씨)
 ㄷ. 男らしい男(남자다운 남자), とてもみじめな乞食(알거지),
 とても悪い泥棒(매우 나쁜 도둑), 長上の老人(나이가 많은 노인)

(2aㄱ~ㄷ)은 한국어에서 ‘上’이 ‘上+N’의 형태를 취하며 ‘上’의 후행 요소가 자립형태의 단어인 경우이다. ‘上’에 의해 복합어가 구성되는 이 경우를 일괄적으로 합성적 결합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 중 가운데 일부는 파생적 결합으로 보아야 할지가 본고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

이다. 지금까지 한자어 접사 연구에서 ‘上’이 접두사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본고의 관점은 ‘上’이 (2a)와 같은 복합어 구성에서 어근이 되기도, 접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자어 접두사 설정에 있어서 ‘인정론’ ‘부정론’으로 갈리고 접두사를 인정하자는 입장에서도 설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다. 方香玉·강희숙(2009)에서는 안소진(2004), 최윤곤(1999), 왕체곤(2008) 및 『우리말 파생어 사전』(2006)에 근거하여 접두사 설정 기준을 단음절성, 비자립성, 의미의 변화, 의미 첨가 등 네 가지로 정한 바가 있다.

단음절성과 비자립성은 한자어 접두사의 전형적인 형태적인 특징이고 후행 어근에 한정적 의미를 첨가하는 점도 접두사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이의가 없다. 하지만 한자 형태소의 ‘의미 변화’는 사실상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 ‘의미 변화’라는 말이 해당 한자가 중심 의미가 아닌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키든 한자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키든 의미적 변화를 명확하게 판단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접두사 설정에서 의미의 허화(허화)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의미 형식화를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의미 형식화’라 함은 문제의 형태가 원래 사전적 의미 즉 어휘적 의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며 의미적 기능보다는 문법적 기능이 더해지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밖에 송철의(1992) 등 많은 연구에서 제기된 생산성 역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한자어 조어력에서 생산성은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접두사 판단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

5) ‘허화’는 ‘문법화’로도 풀이되는데 이는 단어가 주로 어휘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원래의 어휘적 의미를 일부 상실하여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이주화 2005: 142 참조), 중국어에서 ‘老, 小, 大’ 등은 단어이던 것이 의미의 허화를 거쳐 접두사로 된 예이다.

두사 설정 기준을 단음절성, 비자립성, 후행 요소의 자립성, 의미 첨가, 의미 형식화, 생산성으로 설정한다.⁶⁾

이 기준에 근거하여 (2aㄱ~ㄷ)에서 ‘上’의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aㄱ)에서 ‘上’은 [+단음절성], [+후행 요소의 자립성], [+의미 첨가], [±생산성]을 띠고 있으나 [-비자립성], [-의미 형식화]라는 점에 의해 접사의 자격이 부정된다. 여기서 ‘上’은 ‘중하’ 또는 ‘하’에 상대하는 어근으로서 형태적 자립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의미면에서 ‘上’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와 주변 의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上’은 실질 형태소로서의 어근이며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 (2bㄱ), (2cㄱ)에 제시된 중일 언어에서도 ‘上’은 실질적 의미와 형태적 자립성을 갖고 있는 어근으로 기능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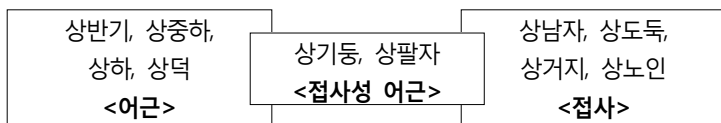
(2aㄴ)이 (2aㄱ)와 구별되는 점은 [비자립성]이다. (2aㄴ)의 ‘상+N’ 구성에서 ‘上’이 자립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 2.1에서 확인하다시피 ‘上’이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대상을 상, 중, 하 등급으로 나눴을 때 ‘등급 높음’을 나타낼 때’였다. (2aㄱ)에서 ‘상’은 [중요함], [좋음]의 의미로 쓰이며 한중일 언어에 *중기등, *하기등, *중팔자, *다팔자’ 등 결합 형태는 없으며 한국어의 ‘상’은 중일 언어에서는 ‘上’으로 대응되지 않고 [중요함], [좋음]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대응되고 있다.(2bㄴ, 2cㄴ)

-
- 6) 方香玉·강희숙(2009) 등 연구에서 접두사 판단 기준으로 ‘의미 변화’를 들고 있으나 ‘의미 변화’는 그 기준을 잡기가 사실 애매하다.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 어휘적 의미를 더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변화’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또한 ‘의미 변화’라는 말이 ‘中心 의미의 변화’를 가리키는지 ‘周邊 의미의 변화’를 가리키는지 그 의미 회복 자체가 모호한 점이 있다.
- 7) 중국어의 경우 대부분 한자가 실질적 의미와 형태적 자립성을 갖고 있어 ‘上班, 上輩, 上策, 上山, 上火, 上課, 馬上, 皇上, 祖上, 上顎’와 같은 대부분 2음절어는 직접 합성어를 구성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해상, 상좌, 최상, 지상, 해상, 상책, 상경, 상서, 향상, 상승, 상통...’, ‘上達, 上級, 上長, 上程, 飛上, 計上, 最上, 機上, 上人, 和上...’ 등 2음절 한자어가 한자어 체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런 단어에서 각 한자는 형태적 자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복합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2a_L)에서 '상'이 [+단음절성], [+비자립성], [+후행 요소의 자립성], [+의미 첨가] 등 자질을 갖고 있어 접사적 성격을 많이 띠는 듯 하다. 하지만 어근으로서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의미 형식화]의 기준에 어긋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함], [좋음]이 '상'의 기본 의미는 아니지만 주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上'의 어휘적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생산성]도 (2a_T)이나 (2a_C)만큼 뚜렷하지 않다. 분석을 통해 (2a_L)에서 '상'은 어근과 접사의 성격을 두루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上'은 어근과 접사의 과도 형태로서 접사성 어근이라 해 두는 것이 좋을 듯싶다. (2a_L)에서 제시된 예들에서 보면 일본어 복합어 구성에서도 '상'은 한국어와 유사하게 접사와 어근의 성격을 두루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a_C)에서 '上'은 후행 어근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X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음'의 의미를 첨가해 주는데 어휘적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으며 '上'이 갖는 기본 의미와 주변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후행하는 단어를 분리하였을 때 '上'의 자립성도 보장되지 않으며 '사람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 어느 정도 생산성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앞에서 설정한 [+단음절성], [+비자립성], [+후행 요소의 자립성], [+의미 첨가], [+의미 형식화], [+생산성] 등 몇 개 기준을 두루 만족하고 있다. 중일 언어의 대응 형식을 살펴보아도 '上'의 접사성은 진일보로 검증된다. (2b_C)과 (2c_C)은 한국어 '상남자, 상거지, 상도둑, 상노인'에 대응된 중국어와 일본어 표현인데 '남자', '거지', '도둑', '노인' 등 후행 단어 앞 요소가 '大-', '赤-', '-らしい' 등 접사형 또는 관형사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上'이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면서 문법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⁸⁾

8) 문법화는 흔히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로 바뀌는 변화'로 정의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된다. 의미약화>의미소실>문법기능획득>문법기능의 전이. 최형용(1997:470)에서 재



<그림 1> 한국어 '上'의 문법화 양상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에서 '上'이 자립 어근에 선행하며 복합어를 구성하는 경우는 '上'의 형태 의미적 기능에 따라 어근 또는 접두사로 분류되며 복합 구성은 합성어거나 파생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上'이 자립 어근에 후행하며 복합어를 구성하는 경우다.

(3)

- a. ㄱ. 지구상, 도로상, 인터넷상, 연장선상, 궤도상
 ㄴ. 구조상, 행정법상, 성격상, 편의상, 실제상, 사실상
 집행상, 생활상, 계획상, 추진상, 건강상, 안전상, 필요상
- b. ㄱ. 地球上, 起跑線上, 道路上, 軌迹上, 网上
 ㄴ. 結構上, 行政法上, 性格上, 實際上, 事實上, 感情上, 理論上, 思想上, 執行上, 預算上, 生活上, 計劃上, 領導上,
- c. ㄱ. 車庫上, 作品上, 地球上, 延長線上
 ㄴ. 構造上, 性格上, 人道上, 便宜上, 實際上, 事實上
 執行上, 生活上, 計畫上, 教育上/健康上, 安全上, 必要上
 行きがかり上, 見掛け上/システム上, デザイン上

(3aㄱ, ㄴ)에서 '上'은 선행 어근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후행할 때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위, 위쪽]과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접사로 보기보다 어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따라서 (3aㄱ)

인용.

에 제시된 단어들은 ‘어근+어근’의 구성으로 된 합성어다.

(3a_L)에서 ‘上’은 선행 어기와 연관된 입장을 의미하면서 ‘…에 있어서’, ‘…에 관하여’, ‘…에 관계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경우 ‘上’의 어휘적 의미는 완전히 추상화 되면서 전형적인 접미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上’은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선행 어기는 한자어 명사 또는 명사성 어근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래어와도 자유로운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체 명사/추상 명사, 명사/용언류 명사 어근, 및 한자어/외래어에도 자유롭게 후행한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와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도 ‘上’은 어근인 경우와 접미사인 경우로 나뉜다. 즉 (3b₁)나 (3c₁)와 같이 ‘上’이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후행하여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근이고 ‘上’의 ‘…에 있어서’, ‘…에 관하여’, ‘…에 관계로’ 등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중일 두 언어에서도 ‘上’은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접미사로 기능하며 선행 어기도 대부분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秋元美晴(1993:20-22)에서는 접미사 ‘上’이 보통 한자어 어근과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이유에 대해 ‘上’이 ‘かたいにユアンスをもつ漢語系接尾辭’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딱딱한 뉘앙스를 띠고 있는 한자어 접미사’라고 함은 접미사 ‘上’이 공식적이고 딱딱한 대화나 문장 상황에 쓰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화용적 의미 기능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일 언어의 유사성은 선행 어기가 용언류 명사 어근이라는 점에서 보여진다. (3a₂)와 (3c₂)는 ‘上’의 선행 어기가 한자어 동사성 명사 어근 또는 형용사성 명사 어근인 경우다.(일본어에서는 漢語サ變動詞の語幹 또는 形容動詞の語幹라고 함). 이 때 ‘上’의 선행 어기는 한자 어근이 자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형용사의 경우 형태-의미적으로

명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야만 접미사 ‘上’과의 결합이 가능해 진다.

(4)

- a. ㄱ. 건강상, 안전상, 필요상
 - ㄴ. *확실상, *곤란상, *용감상, *희미상
- b. ㄱ. 健康上, 安全上, 必要上
 - ㄴ. *確實上, *困難上, *勇敢上, *稀微上

선행 어기의 어원을 대조하면 일본어의 경우는 한자어 외에 고유어와 외래어와도 두루 결합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고유어와 결합되는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도 드물게 외래어 어기와 결합하기도 한다⁹⁾. 일본어에는 많지는 않지만 고유어 동사의 명사형에 ‘上’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중일 ‘上’의 형태론적 기능 대조표

언어 \ 기능	단어	단어 형성소		
	단일어	2음절 한자어	합성어	파생어
한국어	명사	비자립 어근	어근 접사성 어근	접두사 접미사
중국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립 어근	어근	접미사
일본어	명사	비자립 어근	어근 접사성 어근	접미사

9) 중국어는 외래어 차용에서 표음과 표의 원칙이 같이 작용하여 글자로 판단할 수 있는 외래어의 수효 자체가 한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적다. 예를 들면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외래어로 표시되는 ‘컴퓨터, 에어컨, 시스템, 디자인’ 등 단어가 중국어에서는 ‘電視, 空調, 系統, 設計’로 대응된다.

3. ‘上’의 통사론적 기능

‘上’의 형태론적 기능은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통사론적인 지위는 ‘上’이 문장 형성소로서 기능할 때 논의된다. 앞에서 ‘上’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어기가 형태소 또는 단어였다면 이 장에서는 ‘上’이 어떤 통사적인 구성체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어 학계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한국어 ‘上’의 통사적 파생 기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나 일본어에는 없고 중국어에만 있는 ‘上’의 통사적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된다.

3.1. ‘上’의 통사적 파생 기능

(5)

- ㄱ. 관습상, 성격상, 기능상, 편의상, 직업상, 특성상
- ㄴ. [관행과 관습]상, [외모와 성격]상, [의미 기능]상, [고객 편의]상,
[업무 추진]상, [논의 전개]상
- ㄷ. [남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상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논의의 전개]상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5ㄱ~ㄷ)에서 ‘上’의 선행 요소는 단어, 단어 결합, 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5ㄱ)에서 ‘上’은 단어에 결합되는 형태론적인 단위이던 것이 (5ㄴ)의 선행 어기가 ‘N1+N2’, (5ㄷ)에서는 ‘NP+N’의 통사적 구성으로 확대되면서 형태론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형태론적 파생에서 ‘上’이 ‘...에

있어서, ‘...에 관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이 통사적 구성 뒤에서 ‘원인, 근거’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자어 접미사로만 취급되던 ‘上’이 단순히 형태론적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논의는 통사적 구성에 결합 가능한 접미사를 인정하는 관점과 제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대립된다.¹⁰⁾ 전자는 파생의 개념을 단어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선행 요소를 통사론적 구성까지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후자는 파생은 조어적 과정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上’이 그동안 통사적 파생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답-’이나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 어미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짜리, 터, 까지’처럼 실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의존명사나 보조사로 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존명사와 보조사의 기준과 특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한 것은 아니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접미사, 의존명사, 보조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접미사, 의존명사, 보조사 특성 대조표

구분	접미사	의존명사	보조사
특성	1. 비자립성 2. 파생력 3. 앞에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 어미, 부사가 올 수 없음. 4. 선행 요소와 문제 형태 사이에 조사	1. 비자립성 2. 선행 요소는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음 3. 어휘적 의미는 추상적임.	1. 비자립성 2. 선행 요소는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이 올 수 없지만 체언, 부사, 명사구 가능. 3. 여러 격에 통용되

10) 통사적 파생을 인정하는 논의는 임홍빈(1989), 송철의(1992), 시정곤(1998)가 있고 양정호(1991), 구분관(1993) 등에서는 이들 부류를 파생에서 제외시키자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김창섭(1984)에서는 명사를 어기로 하는 ‘-답1-’과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하는 ‘-답2-’를 용언의 일종으로 보아 구나 절이 파생접미사의 선행 성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송철의(1992)에서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답-’과 부사 파생에 참여하는 ‘-이’ 등을 통사적 파생이 가능한 접미사로 보고 있다.

	개입 안 됨. 5. 같은 형태의 실사가 있을 경우 의미적 유연성 없음.	4. 같은 형태의 실사가 있을 경우 의미 유연성 없음.	며 앞에 다른 조사 개입 가능. 4. 같은 형태의 실사가 있을 경우 의미 유연성 있음.
--	--	--------------------------------	---

(5ㄴ, ㄷ)에서 'ㅅ'은 우선 '원인, 근거' 또는 '...에 있어서'라는 의미는 실사로서의 'ㅅ'과는 의미적 유연성이 없다. 다음 (6ㄱ, 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행 요소와 분리하였을 때 다른 조사가 개입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특징에 의해 'ㅅ'이 보조사일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된다. 또한 의존명사는 선행 요소가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지만 접미사는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 어미가 올 수 없는 점에서 'ㅅ'이 의존명사일 가능성도 배제된다.

(6)

- ㄱ. 관행과 관습*(의, 에서, 예, 으로, 인)상,
 외모와 성격*(의, 에서, 예, 으로, 인)상,
 의미 기능*(의, 에서, 예, 으로, 인)상,
 업무 추진*(의, 에서, 예, 으로, 한)상,
 논의 전개*(의, 에서, 예, 으로, 한)상
- ㄴ. 남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의, 에서, 예, 으로, 인)상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논의의 전개*(의, 에서, 예, 으로, 한)상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ㅅ'은 보조사도 의존명사도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여기서 '파생의 범위를 통사론적 구성'까지 확장시키면 'ㅅ'이 접미사로 될 가능성은 충분해진다. 앞에서 '와/과', '의' 또는 절대

격 조사를 매개로 하는 ‘N1+N2’ 구성이든 관형절과 N의 병합인 ‘NP+N’의 구성이든 그 결과는 명사구이며 통사적 구성이다. ‘上’은 통사적 구성에 후행하면서 의미,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송철의 (1992) 등의 관점을 받아들여 ‘통사적 파생’을 인정하고 ‘上’이 ‘-답-’, ‘-이’와 같이 형태적 파생뿐만 아니라 통사적 파생까지도 가능한 접미사로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통사적 파생 기능이 중국어와 일본어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7)

- a. [質量監督]上, [技術層面]上, [性格特征]上, [時間和費用]上
- b. ㄱ. [慣行と慣習]上, [外貌と性格]上, [意味の機能], [顧客の便利]上

- ㄴ. *慣行慣習上, *外貌性格上, 意味機能^{うえ}の上, 業務推進^{うえ}の上,
顧客便利^{うえ}の上

(7a)와 (7b ㄱ)에서 보다시피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도 ‘上’은 ‘N1+N2’ 구성에 후행하면서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어의 경우 連詞(조사)가 개입되거나 또는 두 단어가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통사적 구성을 이루며 그 뒤에 ‘上’이 의미의 허화를 이루며 접미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어는 ‘上’에 선행하는 통사 구성에서 반드시 조사가 나타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 요소와 ‘상’ 사이에 조사 ‘の’가 개입하면서 ‘上’^{うえ}가 아니라 ‘上’^{うえ}가 결합된다. 이때 ‘上’은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N1+N2’의 구성은 통사적 구성이기는 하나 형태론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앞에서 ‘NP+N’의 구성은 관형사절에 명사가 병합하는 형식으로서 형태론적인 차원을 크게 벗어나는 통사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上'이 선행 요소에 '원인, 조건'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장 내에 확대 성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上'의 통사적 파생 기능은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일 언어에서 '上'의 선행 요소가 단어 결합보다 더 큰 통사적 단위인 경우를 보자.

(8)

- a. ㄱ. 因為教師是教書育人的職業，所以言行不能太隨意。
- ㄴ. 爲了有效進行論述，利用表和圖進行說明。
- ㄷ. 因為有容易溶解的特征，所以要溫度要適當控制。
- ㄹ. 認真考察的[基礎]上，歸納總結的[角度]上
- b. ㄱ. [人を教える教師という職業]上，むやみな言動はしてはいけない。
- ㄴ. [(效率的な) 論議の展開]上，表や繪を利用して説明することにする。

중국어의 경우 '上'에서 (5ㄷ)과 같은 통사적 기능은 발견되지 않는다. (8a,b)는 앞의 한국어 예문에 대응된 중국어와 일본어 문장인데 (8aㄱ~ㄷ)에서는 '因爲...所以', '爲了' 라는 관용구(關聯詞), 또는 전치사(介詞)에 의해 앞 문장이 뒷 문장에 대한 '원인'이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8bㄱ,ㄴ)는 한국어와 일치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NP+N+上'의 구성을 이루면서 후행문의 '근거, 원인,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ㄷ)에서 '上'이 구에 결합된 한국어 문장이 전형적인 한국어 문체로 보기에겐 어색한 점이 있던 것에 비해 (8bㄱ,ㄴ)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문체를 취하고 있다. 한국어 '上'의 통사적 기능의 확장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어에서 (8aㄷ)과 같이

‘NP+N+上’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때 ‘上’의 선행 요소는 ‘NP+N’ 통사 구성이 아니라 단어이다.

3.2. ‘上’의 문법 범주 표시 기능

(9)

- a. 他在車上睡覺 / 臉上挂着微笑 / 往天上飛.
- b. 그는 차에서 자고 있다/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하늘로 날아 오르다.
- c. 彼は車の中で寝ている / 顔にかかってくる / 空へびがる。

(9a)에서 ‘上’은 위치,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해당 단어가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만 발견되는 ‘上’의 통사적 기능이다. 이때 ‘上’은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해당 단어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처소’임 나타낸다. 고립어인 중국어에서 단어, 어순에 의해서 범주가 표현되기도 한다. 교착어로서의 한일 언어에서는 체언 뒤에 ‘에서, 에, 로’, ‘で, に、へ’와 같은 의미격 조사에 의해 격이 표현된다.

(10)

- a. 跑上去叫人 / 把門關上/開始吆喝上了.
- b. 뛰어 가서 사람을 불러 오다/문을 닫아 두다/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다.
- c. 飛び出して人を呼んでくる / ドアを閉めておく / 叫び始めた。

(10a)은 중국어에서 ‘上’이 추향동사(趨向動詞)로 쓰이는 경우다. 중국

어 추향동사는 동사 뒤에 붙어 행위의 추세나 방향을 나타낸다. 추향동사의 문법적 의미에 관련해 劉月華(1998)에서는 추향동사가 앞 행위의 ‘趨向, 結果, 狀態’등 ‘태’를 나타내며 문장에서 ‘趨向補語’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고 張燕春(1995)에서는 ‘上’이 선행 동사에 ‘첨가, 출현, 완성, 수용, 합침, 도달, 개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한일의 경우 (10b,c)와 같이 본동사의 뒤에 붙어 본동사를 풀이해 주는 보조 동사로 대응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上’이 단어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 ‘N1+N2’ 통사적 구성에 후행하는 점은 한중일 세 언어가 유사하며 선행하는 통사적 구성이 명사성 단어 결합의 차원을 넘어 관형절을 포함한 ‘NP+N’을 취하는 경우는 한일 언어에만 있고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에만 있는 통사적 기능은 ‘上’이 문장에서 격이나 태, 상 등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격 조사 또는 보조 동사로 표현되는 이런 문법 현상이 중국어에는 ‘上’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중일 ‘上’의 통사론적 기능 대조표

기능 언어	통사적 파생	격	태, 상
한국어	[N1+N2], [NP+N]의 선행 구조를 가짐	기능 없음	기능 없음
중국어	[N1+N2]의 선행 구조만 가짐	처소, 위치, 방향	추향, 상태
일본어	[N1+N2], [NP+N]의 선행 구조를 가짐	기능 없음	기능 없음

4. 결론

이상에서 한중일 ‘上’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논의를 통해 한국어 ‘上’의 문법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중일 언어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혀보았다. 이제까지 기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론적 측면에서 단일어와 복합어 구성으로 나뉘서 ‘上’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 한일 언어에서 ‘上’은 단어로서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고 나타내는 의미도 한정적인데 비해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품사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

복합어 구성에서 한국어의 ‘上’은 어근과 접두사로서의 특징이 모두 발견되었다. 일본어에서는 접사와 어근의 과도 형태로 나타나고 중국어에서는 어근으로서만 기능하였다. 접미 파생의 기능은 한중일 세 언어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자립 어근 뒤에서 실질적 의미를 지니며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도 세 언어에서 유사하였다.

둘째, 통사론적 측면에서 한국어 ‘上’이 단어 결합 또는 구와 같은 통사적 구성에 후행함으로써 의존명사나 보조사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는데 비교 분석을 통해 ‘上’의 접사성 특징이 통사적 파생 기능으로 확장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통사적 파생의 기능은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구에 후행하는 통사적 파생은 일본어와 일치하였다. 이 경우 전형적인 한국어 문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부터 이러한 기능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사적 특징에서 ‘上’이 격, 상, 태 등 문법 범주를 표시하는 기능은 중국어에서만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는 격조사나 보조사로 대응되었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이 한국어 한자어 형태소 연구 및 한중일 한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上’이 복합어 구성에

서 선행 또는 후행 요소의 형태, 의미적 제약성에 대한 이해 및 통사적 기능에서 한중일 비대칭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한자 문화권 학습자들의 학습 오류를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중일 언어에서 형태, 통사적 기능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한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 문헌>

1. 資料

- 이희승(199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漢語大詞典』 (全新版) (2003), 《漢語大詞典》編寫委員會編.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現代漢語辭海』 (2002), 《現代漢語辭海》編委會主編. 光明日報出版社.
『新選漢和辭典』 (昭和38年), 小林信明 編, 株式會社 小學館.
『日語漢字辭典』 (1996), 曲廣田·王崧 編, 吉林大學出版社.

2. 論著

- 구본관(1993). 국어 과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7쪽~140쪽.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261쪽~308쪽.
김균일(2003).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와 구조, <일본연구> 18,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39쪽~255쪽.
김종택(1972). 복합 한자어의 어소 배합 구조,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73쪽~85쪽.
김창섭(1984). 형용사 과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쪽~161쪽.
남기심·고영근(200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노명희(1998). 현대 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노명희(2005). 현대 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 태학사.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국어학회. 89쪽~113쪽
- 方香玉·강희숙(2009).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접두파생어의 대조 연구, <새국어교육> 8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485쪽~513쪽
- 박민수(2009). 한국어와 중국어의 방위사 "전(前), 후(后), 상(上), 하(下)"의 비교분석, <비교문화연구> 13권 1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9쪽~40쪽.
- 송기중(2007). 동양 삼국 한자 어휘 조감, <국어학> 49집, 국어학회. 315쪽~331쪽.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서울: 한국문화사.
- 심재기(2000). 國語 語彙論 新講 서울: 태학사.
- 심혜령(1998). 통사적 언어 단위에 붙는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국어 사전에서의 처리를 중심으로, <사전편찬학 연구> 8집. 한국문화사. 271쪽~297쪽.
-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양정호(2015). 중세국어 명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집, 국어사학회. 7쪽~32쪽.
- 오성애(2012). 방위지시 한자의 형태론과 의미론, <조선어연구>, 연변언어연구소. 356쪽~373쪽.
- 이강로(1978). ‘上’자와 ‘下’자의 어휘 의미적 연구, <국문학논집> 제9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쪽~64쪽.
- 이현주·이선웅(2013). 일본어 화자 대상 중급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형 한자어 대조, <우리말글> 59, 우리말글학회. 221쪽~252쪽.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25(1), 한국언어학회. 167쪽~196쪽.
- 정원수(1991). 국어의 단어 형성론, 서울: 한신문화사.
- 최운곤(1999). 현대 국어 한자어 파생법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1997).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69쪽~489쪽.
- 홍사만 등(2009). 한국어와 외국어 대조 분석론. 서울: 역락,
- 馮勝利 著(2009). 漢語的韻律、詞法与句法. 신수영·이우주·전기정 譯(2013) 중국어의 운율과 형태-통사, 서울: 역락,
- 符淮青(1985). 現代漢語詞匯, 박홍수 역(2007). 現代漢語詞匯, 서울: 차이나하우스.
- 方經民(2004). 現代漢語方位成分和語法化, <世界漢語教學>(2), 世界漢語教學學會. 5쪽~15쪽.
- 黃小麗(2014). 日語方位詞“上”的語法化考察, <外語教學与研究> 第46卷第4期, 北京外國語大學學報. 531쪽~640쪽.
- 李云倩(2013). 方位詞“上、下”的漢日對比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月華(1998). 趨向補語通釋. 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邱斌(2008). 漢語方位類詞相關問題研究. 上海:學林出版社.
- 沈宇澄(1997). 現代日語詞匯學. 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 許余龍(2010). 對比語言學. 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 秋元美晴(1991). 漢語系接尾辭‘~じょう’について, <綠岡詞林>15. 19쪽~27쪽.
- 秋元美晴(1994). 談話における漢語系接尾辭‘~じょう’の機能について, <惠泉女學園大學人文學部紀要>6. 惠泉女學園. 1쪽~16쪽.
- 寺村秀夫(1981). 日本語の文法(下), 東京:國立國語研究所.
- 久島茂(1999). ‘中’と‘上’の意味解釋:《物》と《場所》の對立, <靜大國文> 41, 1쪽~13쪽.
- 張科蕾(2004). 字音形態素‘上’と‘下’の造語機能に關する中日對照研究, <日本學研究> 14. 北京日本學研究中心. 19쪽~43쪽.

오성애 (Wu ShengAi)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中國青島市松嶺路238号 中國海洋大學 外語學院140#

전화번호: 86-532-66787533

전자우편: agape@ouc.edu.cn

접수일자: 2016년 2월 4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3월 7일

게재확정: 2016년 3월 10일